

전남 수산물 해외시장 다변화 ‘잔걸음’

김·전북 등 북미지역 이어 유럽시장까지 진출

장흥 무산김 40만속 미국 수출 유통협약 체결

해남군 수협, 중국 길림성 업체와 100억 협약

전남의 전력 수출 품목인 김, 전북 등 주요 수산물들이 미국, 중국, 캐나다 등은 물론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전남도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까지 시장을 다변화해 적극적인 공략에 나섰다.

도는 23일 “장흥 무산김은 김 40만속 미국 수출을 위해 장흥군과 대리 어촌계, 전원수산, (주)삼해상사간 유통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리 어촌계는 물김을 생산하고, 전원수산은 마른김을 가공·생산하

며, (주)삼해상사는 조미 김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또 미국인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USDA)을 획득해놓기도 했다. 해남군 수협은 중국 길림성 장춘

시의 여화만백화 유한공사와 2014년 산 해남 수산물에 대해 연간 100억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1년간 해남에서 생산되는 김과 수산물이 중국 길림성에 수출되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여화만백화 유한공사는 국내 대형 마트 크기의 백화상점을 장춘시에만 48개소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해남산 ‘땅끝에찬’ 수산물을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에 소재한 조미 김 수출업체인 J물산은 최근 독일 바이어가 방

문해 수출물량을 협의 중이다.

그동안 전남의 수산물은 일본에 편중 수출했으나 최근 중국과 미국·캐나다 등 북미대륙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유럽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현지 수출시장 위생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산물 가공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목포시의료원 시설 현대화 서남권 거점병원 거듭난다

90억 들여 본관 증축 등 300병상 규모로 확장

서남권 유일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목포시 의료원이 노후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 현대화를 끝내고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난다. 목포시 의료원(원장 최태욱)은 지난 2009~2011년 총 112억7000만원을 들여 재활 요양병동을 준공한 데 이어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본관 증축과 리모델링을 마치고 25일 준공식을 갖는다.〈조감도〉

이에 따라 시 의료원은 연면적 6425㎡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재활 요양병동(159 병상)과 연면적 8121㎡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본관(158 병상) 등 총 300 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또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척추·관절센터의 우수 의료진을 초빙해 올해부터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등을 신규로 개설, 특화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병원 신뢰도도 크게 향상

됐다.

시 의료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최신 MRI(자기공명 영상)를 15억원에 구입,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 의료원은 50 병상 규모의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을 펼쳐 그동안 환자나 보호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온 간병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화로 지난 2008년 폐쇄된 기존 장례식장도 리모델링해 본관에 분향소와 접객실 각 3실, 냉동실 등을 갖춰 선진화된 장례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욱 원장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진료와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구석기자 yousou@



신안 천일염, 강원 영월 절임배추에 사용된다

양 지자체 구매협약 체결

강원도 영월군 절임배추에 신안 천일염이 사용된다.

신안군과 강원도 영월군은 지난 20일 영월군청 회의실에서 신안 천일염 구매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으로 영월군은 지역 절임배추에 품질이 뛰어난 신안 천일염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 신안군과 영월군은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생산자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신안군은 속초시, 순창군, 청원군과도 천일염 구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우량 군수는 “영월 절임배추에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게 되면 품질인증과 함께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며 “양 군이 합심해 생산자 소득증대에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내년 세계박람회 첫 선

담양군, 필리핀 제작자 협의

담양군이 한국 최초로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 내년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에서 선보인다.

담양군에 따르면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개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설치 계획을 계획함에 따라 필리핀 소재 파이프 오르간 제작사 관계자 3명이 지난 19~22일 3박4일 일정으로 담양을 방문했다.〈사진〉

이들은 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장소의 적합성과 관객 동선, 습도 등 다양한 분야를 점검했다. 앞서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필리핀 대나무 오르간 축제현장을 방문,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제작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체크했다.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은 높이 4m, 폭 3m 크기로, 금속 파이프 대신 792개의 대나무 파이프를 사용해 담양군이 지향하는 에코 생태도시에 걸맞게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진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오르간 설치장소가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제작사와 군이 함께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봄철 산불대비 조기진화 훈련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최중관) 직원들이 최근 흑산도 진리에서 산불 조기진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국립공원 구역내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기보고 체계 유지와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가동 및 조기출동, 산불 진화치량을 활용한 진화반 투입 등 실제 상황을 대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 우럭 주식회사, 가공시설 준공

암해읍에…양식 배합사료·건우럭 가공품 생산 박차

어업인들이 주주가 돼 설립한 어업법인 신안 우럭 주식회사가 지난 22일 신안군 암해읍에서 가공·기반 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신안우럭(주)은 지난 2010년 1월 39명의 어업인들이 13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

한 회사로, 우럭 양식 배합사료와 건우럭 가공품을 주력 품목으로 하고 있다.

회사 창립 초기인 2011년에는 2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2012년에는 대풍피해로 매출액이 11억원으로 줄

어되면서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액이 42억원을 넘어섰고 당기 순이익도 3억원을 기록했으며, 정규직을 포함한 45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어민들이 설립한 회사가 지역경

제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신안군의 우럭 양식 면적은 144ha로 80여가가 연간 4200t을 생산해 2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상인들에게 덩으로 주던 관행과 외상거래 등으로 휘둘렸던 어업인들은 신안우럭(주)이 본격 가동되면서 이 같은 유통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왕칠나라
www.hcnara.co.kr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모두 가능합니다.

성공의 비결! 황칠에 투자 하십시오. 투자자 상담 환영!

✓ **처음** 식당을 창업 하시는 사장님

✓ **기존** 식당을 운영 하시는 사장님

가맹 문의 061 864 5788

수완점성업종

소태점성업종

황칠나라

황칠다남(주)